

“값으로 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크라전 참전 남성 사망 보조금 챙기는 러 ‘검은 과부들’의 ‘결혼 사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러시아 젊은이들과 형식상 결혼을 하고 참전에 따른 보상이나 사망 시 유족 위로금 등을 챙기는 ‘결혼 사기꾼’ 여성들이 적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이같은 여성들은 ‘새로운 전쟁 사기꾼’으로 ‘검은 과부’로도 불린다.

러시아 법원은 여성들이 군인들을 속여 결혼시키고 사망보상금을 노린 사례 몇 건을 확인했는데 사기 금액은 18만 달러(약 2억 5,00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군인이나 친척이 위장 결혼을 통해 참호에서 번 돈을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

되거나 결론이 내려진 법원 사건 6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2023년 10월 세르게이 칸도즈코는 입대 다음 날 결혼식을 올렸다. 40대였던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신부 엘레나 소콜로바와 결혼에 대해 언급한 적 없어 당황했다. 결혼식은 사진 촬영이나 반지 교환도 없이 20분 동안 진행됐고 하객 단 한 명 뿐이었다.

이후 소콜로바는 남편이 전장에 있을 때 전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계속 살았다. 칸도즈코가 부상으로 전사하자 그녀는 유족 보상금 약 20만 달러를 수령했고 이는 러시아 직장인 평균 연봉의 거의 20배에 달한다. 법원은 그녀가 상속금을 노리고 속임수로 결혼했다며 결혼을 무효로 하고 3,000루블(약 5만 3,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의원들은 ‘검은 과부’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거나 군인과 결혼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 결혼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전투에서의 죽음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의원은 “이 괴물들은 전사자 유가족을 돌보는 가장 신성한 일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기 결혼이 나타나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에 참가하도록 거액의 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입대 시 높은 급여와 보너스, 최전선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유족에게는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러시아의 소셜미디어(VK)에는 전쟁에 나간 군인을 결혼 상대로 찾는 여성들을 위한 수십 개의 모임이 있다. ‘군인과 데이트’, ‘전장에서 다친 군인과 데이트’ 같은 단체방이 실제로 운영되며, 이런 공간이 잠재적 사기꾼들이 군인을 쉽게 노리는 통로가 되고 있다(출처: 뉴시스 종합).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8,20)

하나님,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높은 급여와 거액의 보상금으로 모병을 유도하며 형제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얻으려는 또 다른 전쟁의 민낯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전장이라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찾아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주를 의지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몸 된 교회를 통해 진리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영혼들이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 말레이시아-태국 수역에서 무슬림 난민 선박 침몰

미얀마를 탈출하려던 무슬림 이주민 약 300명을 태운 배가 지난주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 인근 인도양에서 전복됐다고 9일 뉴시스가 전했다. 당국은 바다에서 시신 1구를 수습하고 10명을 구조했지만, 200명 이상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배가 언제, 어디서 침몰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고위 관리는 배가 태국 수역에서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고 이주민 밀입국 조직이 점점 활개를 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조된 사람들 중에는 미얀마 라카인주 출신 로힝야 무슬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가 라카인주에서 출발해 사흘 전쯤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 북부 랑카위 근해에서 발견된 생존자들을 구조한 뒤 수색이 이어지고 있으며,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전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로힝야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였으나 이들의 대규모 선박 입국을 우려해 숫자를 제한했다. 말레이시아에는 이미 11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등록돼 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편 139:9-10)

하나님, 미얀마를 탈출하려던 무슬림 난민을 태운 배가 전복되어 소수의 인원만 구조된 절박한 상황을 주께 의탁 드립니다. 종교적, 민족적 박해로 인해 살 곳을 찾아 방황하는 로힝야족들과 무슬림 난민들에게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비록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지라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의 끝에 내가 있음을 이들이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가 삶 속에 충만하여 주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 유니세프 “허리케인 피해로 카리브해 100만 어린이 삶 위협”

지난달 말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Melissa)의 피해를 입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0만 명의 어린이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지난 7일 이번 허리케인으로 자메이카,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등에 폭우, 강풍, 해일, 홍수, 산사태가 이어지며 약 100만 명의 어린이가 삶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추산했다. 쿠바에서는 약 44만 1,000명의 어린이가, 자메이카에서는 최소 28만 1,000명의 어린이가 영향을 받았으며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68만 명 가까이 된다. 로베르토 베네스 유니세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사무소장은 “식량, 식수, 위생 시설, 보건·영양 서비스 접근성, 교육의 복귀 경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복구 상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관계자들은 자메이카 서부 지역 곳곳에 약 500만(톤)의 잔해가 쌓여있고, 일부는 일주일째 고립돼 있다고 보고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잔해량은 화물차 약 48만 대 분량에 달한다. 쿠바에서도 7만 6,689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743채가 완파됐다. 각국에서 집계한 사망자는 자메이카 32명, 아이티 43명이며 아이티에서는 13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이사야 31:5)

하나님,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카리브해 지역의 수많은 어린이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에 만군의 여호와와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을 구하며 나아옵니다. 특별히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이 어려운 나라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가장 열악하고 고립되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주의 간섭하심으로 돕는 손길을 보내사 살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몸 된 교회의 섬김으로 나타나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영혼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이어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고등법원, 레이먼드 코 목사 가족에 97억 원 배상 명령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2017년 납치·실종된 레이먼드 코(Raymond Koh) 목사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며 가족에게 3,100만 링깃(약 9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이 최근 전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부가 코 목사의 선교활동을 이슬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고, 그 때문에 정부가 그를 납치해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납치에 가담한 인물 중 일부는 당시 현직 또는 전직 경찰관으로, 정부의 직접

적인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 목사는 2017년 2월 13일, 복면을 쓴 다섯 명의 남성에 의해 차량으로 납치됐다. 이 장면은 폐쇄회로TV(CCTV)에 찍혀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납치 이후 줄곧 남편의 행방을 추적해온 아내 수산나 코(Susanna Koh)는 정부의 공모와 부당한 수사 지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후 그녀는 기자들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 판결이 레이먼드를 되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과 마무리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투쟁과 판결을 자비롭고 용기 있는 사람 레이먼드 코 목사와 모든 강제실종 피해자들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코 목사는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사회복지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활발히 사역해 왔다. 그러나 일부 무슬림 지도자들과 단체들은 그가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선교활동을 한다”고 비난했고, 그의 납치는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직후 발생했다.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실종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종교적 소수자 보호와 정의 실현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 법치, 그리고 국가의 인권 책임이라는 말레이시아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수산나 코와 자녀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어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어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께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시편 9:7-9)

하나님, 말레이시아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한 코 목사님의 납치·실종 사건에 대해 정부의 관여 사실이 밝혀지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람이 아닌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난무한 이 땅에 주님의 심판과 공의를 나타내사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시고 정부의 부당한 압제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는 주를 더욱 의지하며 생명 다해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그늘에 가려 고통하는 영혼들이 열방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 세계 필로폰 확산 원인…“中 기업 마약 원료성분 수출 때문”

최근 아시아 등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기업들의 필로폰 원료 성분 수출이 지목됐다고 연합뉴스가 워싱턴포스트(WP)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가 미국·동남아 각국 정부 문서, 관련자 40여 명과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기업들이 미얀마의 무법지대로 필로폰 전구체(원료 성분)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수출하면서 마약 확산이 촉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마약조직의 거점인 미얀마 산주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필로폰이 생산 밀매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국에 따르면, 작년 동남아·동아시아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236t으로 전년보다 24% 급증,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필로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호주에서는 필로폰 사용이 21% 늘었고, 한국도 마약 사용자 수가 5년 만에 60% 이상 급증, 40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 기업 수입 곳은 감기약 성분이지만 가공하면 필로폰 원료가 되는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등 물질을 온라인으로 공개 판매하고 미얀마 등지로 직배송해줬다. 2023년 중국 후베이성 소재 ‘원그룹 파머슈티컬’은 중국 알리바바에서 마약 원료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 안내문과 함께 화학물질을 판매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의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언 28:5,13)

하나님, 중국 기업들의 불법 유통과 수출로 인해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까지 급증한 필로폰 문제를 주께 의탁 드립니다. 정의를 깨닫지 못하며 자기 유익과 재물을 쌓기에 탐하는 죄인들의 심령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상실한 모든 악과 불의의 현장마다 진리의 빛이 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전부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따라 복음을 믿는 자의 합당한 예배가 열방 곳곳에 올려질 그날을 소망합니다.

▲ 이란, 기록적 가뭄에 ‘물 배급제’·‘대피령’까지 거론

이란이 수개월째 이어진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물 공급을 배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가디언 등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수도 테헤란에 식수를 공급하는 5개 주요 댐 중 1개는 완전히 고갈됐고, 다른 한 곳은 저수율이 8%에도 못 미친다. 강수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저수지가 거의 바닥났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비가 오지 않으면 물 공급을 배급제로 전환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대피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제2의 도시 마슈하드 역시 4개 댐 중 3개는 이미 가동을 멈추고 저수율이 3% 아래로 떨어졌다. 이란 수자원 관리공사 압바살리 케이카에이는 전국 19개 댐이 지난달 말 이미 말라버렸다고 밝혔다. 이란 기상청은 향후 10일간 비 예보가 없다고 밝혔다. 당국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물 절약을 당부하며 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가정과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신명기 11:13-14)

하나님, 사상 최악의 가뭄이 수개월째 이어져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이란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갈급함과 생존이 달린 문제 앞에 이 땅 영혼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와 진정한 구원자를 찾고 구하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거룩한 신부된 이란교회를 통해 바람을 다스리시며 구름을 일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는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주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복음주의자들, 총선 앞두고 전국적 기도운동 전개



온두라스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오는 11월 30일 총선을 앞두고 평화로운 선거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테구시갈파목회자협회(Asociación de Pastores de Tegucigalpa)의 주도로 전국 18개 부서에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회를 대표해 연설한 마리오 바네가스(Mario Banegas) 목사는 “교회의 선거 참여는 기도에서 시작된다”며 “우리는 먼저 기도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두라스 국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네가스 목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온두라스 전역의 시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거리로 나선다면, 그것은 평화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운동은 특정 정부 기관이나 정당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국민이 믿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 경계의 표현”이라며 “시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군과 선거 과정 모두가 전국선거위원회(CNE)가 정한 규정 내에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아직 온두라스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며 제도적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네가스 목사는 복음주의 신자들이 시민 참관인(선거 감시인)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며, 모든 정당이 유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앙과 민주주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두 가치는 공동선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두라스 민간기업협의회(Cohep)의 아나벨 가야르도(Anabel Gallardo) 회장도 전국선거위원회 소속 의원 코세테 로페스(Cossette López)와 아나 파올라 홀(Ana Paola Hall)을 공개 지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그녀는 X에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온두라스 기업인으로서 연대를 보낸다”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희생과 책임을 아는 수백만 여성들의 힘이 우리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세운다”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다니엘 7:27)

하나님, 정치적 혼란의 시기를 지나는 온두라스에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두셔서 선거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증인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깨어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위엄이 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누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소서.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법원 인근 폭탄 테러…최소 12명 사망, 27명 부상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11일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모하진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테러범이 경찰차 옆에서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밝히며 “공격자가 법원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차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슬라마바드 경찰은 사상자 대부분이 행인과 법원에 출석하려던 민간인이라고 전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고,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했다. 파키스탄탈레반은 “비이슬람법으로 판결한 판사와 공무원, 변호사가 표적이었다”며,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시행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테러는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 파크툽와와주 와나 지역에서 군이 무장세력과 교전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나크비 장관은 “전날 와나에서도 아프간인이 공격을 감행해 3명이 사망했다”며 아프가니스탄의 직접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 파키스탄탈레반은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아프간 탈레반과는 별개지만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누가복음 5:31-32)

하나님, 파키스탄 정부와 민간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한 파키스탄탈레반이 또다시 테러를 일으켜 혼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돌봐주십시오. 폭력과 테러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탈레반 조직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리에서 떠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카메룬 “대선후 시위 폭력 사태로 16명 사망”

카메룬 당국은 지난달 대선 이후 발생한 시위와 폭력 사태로 16명이 사망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요 사태 이후 정부의 첫 공식발표로 폴 아탕가 은지 내무장관은 두알라에서 시위 참가자 13명을, 북부 지역에서 3명을 사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800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야권 주장에 따르면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5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카메룬 전역에서 시위대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력적 탄압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관련 군경 책임자를 즉시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대선에서는 92세의 폴 비야 대통령이 53.66%의 득표율로 35.19%를 얻은 야당 카메룬국가구원전선(FNSC)의 이사 치로마 바카리 후보를 앞서 8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 발표 전후 두알라 등 여러 도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결과 발표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군경이 강경 진압하며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치로마 후보는 헌법위원회의 비야 대통령 당선 발표에 불복하며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비야 대통령 취임식 전날 “이제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한다”며 FNSC는 자체 집계 결과 54.8%의 득표율로 31.3%의 비야 대통령을 앞섰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시편 58:2,11)

하나님, 지난달 치른 대선 결과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을 향해 폭력과 총격을 가해 더욱 불안정한 시기를 맞은 카메룬을 주께 의탁 드립니다.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과 의혹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강경한 태로도 장기 집권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있는 폴 비야 정권을 책망하여 주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위엄과 다스리심이 몸 된 교회를 통해 더욱 카메룬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땅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이 경외함으로 서서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